

Shakespeare 관련자료 분류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Suggesting an 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 System for Classifying Materials by and about Shakespeare or His Works

오동근(Dong-Geun Oh)** · 황일원(Il-Won Hw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Shakespeare 관련항목의 재전개를 위한 제안 |
| II. Shakespeare 관련항목의 전개 | 1. Shakespeare 관련항목의 분류실태와 문제점 |
| 1. DDC | 2. 새로운 분석합성식 전개방식의 제안 |
| 2. LCC | IV. 요약 및 제언 |
| 3. CC | |
| 4. Shakespeare 관련단체 및 연구자들의 분류 | |

초 록

이 연구에서는 Shakespeare에 관련된 문헌의 분류에 있어서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당주제의 확장전개를 위해 DDC, LCC, CC 등의 주요분류표와 관련분야의 전개표 등을 참고하여, 새로운 분석합성식 분류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전개방식은 기본적으로 Shakespeare라는 주제아래에서 4개의 패싯을 “일반적 특성(generalities) + 문학형식(form) + 개별작품(works) + 언어(language)” 순으로 전개하도록 하고, 각 패싯에 대해 별도의 구체적인 배열구조(array)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문헌분류, 분석합성식분류, 셰익스피어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general problems in classifying materials by and related to Shakespeare in the university libraries and suggests a new analytico-synthetic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n the related classes on the major classification systems including DDC, LCC, CC, etc. and other studies and hompages in the area of Shakespeare study. New system consists of four facets, and its facet formula is “generalities + form + works + language,” each of which includes its own foci.

Key Words: analytico-synthetic classification, CC, DDC, library classification, LCC, Shakespeare

* 이 논문은 계명대학교대학원의 학술연구장학금에 의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임.

** 계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odroot@kmu.ac.kr)

*** 계명대학교 도서관 조교

• 접수일 : 2003. 2. 14 • 최종심사일 : 2003. 2. 16 • 최종심사일 : 2003. 2. 26

I. 서론

영국의 대문호 William Shakespeare가 본격적인 작품활동을 한 시기는 약 4세기 전이다. 그 자신은 1590년에서 1613년까지 10편의 비극과 17편의 희극, 10편의 역사극, 2편의 장시와 시집 *Sonnets*를 집필¹⁾하였지만, 그 이후 400여년의 세월동안 그와 관련된 저작물은 엄청나게 증가하였다. Shakespeare 자신이 발표한 원저작의 전집, 번역 전집, 그들의 선집, 개별 원저작, 개별 원저작의 번역저작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해설 및 주석을 가한 저작, Shakespeare에 대한 전기나 시대상에 대한 저작 등 아주 다양하며 그 양 역시 대단히 방대하다. 또한 많은 대학에서는 그에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어 대학도서관에서 그에 관련된 저작물은 교수는 물론 학생이나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Shakespeare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 언급된 것은 1907년²⁾이라 하며, 본격적으로 저작물들이 발간되고 연구가 시작된 것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그의 400번째 생일인 1964년 이후라고 한다.³⁾ 그후 많은 저작물들이 번역되어 지금에 이르렀다. 그 과정에서 그의 작품에 나타난 가족관, 사회관, 그리고 정치관 등은 그의 저작물이나 연극 등을 통해, 부모 자식간의 상호 존중, 부부간의 대등한 협력 관계가 가정내의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고 여권 신장이 요구되는 한국인에게 개선의 방향을 제시함을 지적하는 등,⁴⁾ 한국인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양적인 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Shakespeare 관련저작물들은 도서관 이용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을 포함한 많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hakespeare 관련자료의 조직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해당문헌의 성격 및 문헌적 근거(혹은 문헌적 타당성: literary warrant) 등을 고려하지 않고 분류작업시 여타의 일반문학류와 함께 그들 문헌을 취급하고 있는 것이나, 서가상의 배열에 있어 국외문헌과 국내문헌을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 취급하는 경우 등은 그 대표적인 예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시각에서, Shakespeare의 저작 및 그에 관련된 문헌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분류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자료들을 분류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여러 가지 분류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전개방식을 제안하기 위해 시도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먼저 Shakespeare

1) 김종환, *맥베스*(대구 : 태일사, 2002), p.16.

2) 이경식, “한국의 셰익스피어 연구 : 1945-1983,” *Shakespeare Review*, 8(1984), p.3.

3) Chong-Ok Shin, “Shakespeare and Korea: His Tragedies on Korean Stage,” *Shakespeare Review*, 32(1998), p.145.

4) 신용재, “셰익스피어의 한국에서의 의미,” (광운대)논문집: 인문·사회과학편 23(1994), p.128.

저작물에 관련된 임의규정(options)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와 열거식 분류표의 대표적인 예인 LCC(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분석합성식 분류표의 대표적인 예인 CC(Colon Classification) 등의 분류표와 Shakespeare 관련단체 및 연구자들의 분류예에 마련된 Shakespeare 관련항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류시스템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분류상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Shakespeare 관련자료를 분류할 때 여러 분류표에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합성식 분류시스템을 전개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Shakespeare 관련항목의 전개

이 장에서는 Shakespeare 관련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DDC와 LCC, CC 등 주요 분류표와 관련단체 및 연구자들의 분류시스템에 나타난 전개방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DDC

1.1 초판~제15판

DDC에서 Shakespeare가 속한 주류(main class)는 아홉 번째인 800 문학 및 수사학(통칭 문학류)이다. 이 주류는 모든 문학작품들과 문학에 관한 거의 모든 저작들을 다루고 있다.

DDC에 있어서 문학의 분류부문은 1876년 그 초판에 제시되었던 항목의 골격이 1885년 제2판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는 이후 120여년이 지난 현재의 제21판까지도 제2판의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다만 그 동안 부분적으로 약간의 개정과 세분전개가 이루어졌다.⁵⁾ 특히 제2판은 비단 문학류 뿐만 아니라 여러 면에서 볼 때, 차후의 DDC의 형식과 방침을 설정해주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판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⁶⁾ 문학류 측면에서 본다면 개요표 12페이지와 본표 176페이지, 색인 86페이지 중 거의 1/4이 문학분야의 세분전개였다. Dewey는 여러 국가의 문학 권위자들에게 그들 나라의 가장 잘

5) 남태우, "LCC·CC·DDC의 어문학구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대학원, 1991, p.62.

6) Lois Mai Chan, et. a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 practical guide*, 2nd ed.(New York: Forest Press, 1996), p.5.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4권 제1호)

알려진 작가들을 시대별 및 희곡, 시, 소설 등과 같은 문학양식별로 열거해 주도록 요구했고, 이를 분류표에 적용함으로써 DDC를 통해 사서들은 Mercy Warren과 Thomas Gadsby가 식민지 시대의 미국의 희곡에 있어서 주도적 인물이었고, Tyrtaeus가 그리스의 서정시를 썼다는 것을 알도록 했다.⁷⁾

제12판⁸⁾에서는 문학분야에 몇몇 미국작가와 영국작가를 추가했는데, Shakespeare와 관련된 항목을 보면 <표 1>과 같이 그 분류기호가 822.33임을 알 수 있다.

<표 1> DDC 제12판에서의 Shakespeare의 분류

822.3	Elizabethan	1558-1625
.31	Greene, Robert	1561-1592
.32	Marlowe, Christopher	1564-1593
.33	Shakespeare, William	1564-1616
.34	Johnson, Ben	1574-1637
.35	Beaumont, Francis and Fletcher, John	1584-1616 1579-1625
	:	
	:	

제15판은 용어들을 현대화·표준화하고 모든 주제를 동일한 수준에서 세분할 수 있다는 이용자들의 오랜 염원을 반영한 결정판이었다. 이와 같은 의견에 따라 제15판에서는 불필요한 항목들을 과감하게 삭제하여 그 분량을 이전판의 10분의 1 정도로 줄이고, 용어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었으며, 충분한 정의(definitions)와 명백한 지시사항(instructions)을 추가하였다.⁹⁾ 그의 영향으로 Shakespeare의 분류기호는 <표 2>와 같이 본표 및 상관색인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다.

<표 2> DDC 제15판에서의 Shakespeare의 분류

본 표	822.33 Elizabethan (1559-1625) Include Shakespeare, Ben Johnson, Beaumont and Fletcher
상관색인	Shakespeare, William (drama) 822.3 (poetry) 821.3

이것은 이전판들에서 부여되었던 Shakespeare 저자기호가 포함주기(including note)에

7) John Phillip Comaromi, *The Eighteen Editions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New York: Forest Press, 1976), pp.149-150.

8) 이하 DDC 각 판의 Shakespeare 관련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판의 관련내용 참조.

9) 오동근, DDC연구(대구 : 태일사, 2002), p.38.

의해 식별되는 입석(立席: standing room)의 토픽, 즉 해당 토픽에 관해 쓰여진 저작들은 비교적 적으나, 장차 그 문헌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 때에는 자체의 기호가 부여될 수 있는 토픽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제16판~제21판

입석토픽으로 변경되었던 Shakespeare 저작기호는 제16판에서 다시 현재의 분류기호인 822.33으로 환원되었다. 뿐만 아니라 DDC 16판은 Shakespeare 저작물 배열을 위한 특별보조표(special table)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표는 이후의 판에 나타나는 Shakespeare 저작물의 세분배열(subarrange)을 위한 근간이 되었으며, 변화는 거의 없었다. 최신판인 DDC 제21판의 Shakespeare 분류는 <표 3>¹⁰⁾과 같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822.33 아래의 “Option”이란 용어는 제20판부터 새로이 등장하였다. DDC 제16판 및 DDC 제17판부터 19판까지에서는 <표 4>와 같이, 제16판의 세분전개 수단인 특별보조표(special table)를 상관색인 뒤에 별도로 첨부하거나 본표내에 제시하고 있다.

DDC에서 문학류의 분류는 제1차 국어구분, 제2차 문학형식, 다음에 시대, 작가명에 의해 구분된다. 즉 “문학 + 국어 + 문학형식 + 시대 + 작가명”의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작가명의 경우는 Shakespeare를 제외하고 제15판 이후 본표에서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DDC 제21판에서 작가명인 Shakespeare의 분류기호는 <표 3>에서와 같이 크게 보면 저작에 관련된 부분과 저작에 관련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당연 후자일 것이다. 후자는 다시 비평(criticism), 전집(complete works), 선집(partial collections), 개별저작(individual work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개별저작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개별 저작의 기호를 살펴보면 중앙엔트리(centered entry)를 통해 >O-R Comedies, >S-V Tragedies, >W-X Histories, Y Poems (optional numbers; prefer 821.3)의 넷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전집과 선집은 다시 주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리고 번역한 것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호법에 있어서는 DDC가 지향하고 있는 순수기호법과는 달리 알파벳문자를 도입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New York: Forest Press, 1996).

〈표 3〉 DDC 제21판에서의 Shakespeare의 분류

822.33 William Shakespeare
(Option: Subarrange works about and by Shakespea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table, which may be adapted for use with any specific author :
A Authorship controversies
(Option: Class here bibliography; prefer 016.82233)
B Biography
D Critical appraisal
E Textual criticism
F Sources, allusions, learning
G Societies, concordances, miscellany
H Quotation, condensations, adaptations
I Complete works in English without notes
J Complete works in English with notes
K Complete works in translation
L Partial collections in English without notes
M Partial collections in English with notes
N Partial collections in translation
> O-Z Individual works
> O-R Comedies
O1-2 All's well that ends well
O3-4 As you like it
O5-6 The comedy of errors
O7-8 Love's labour's lost
P1-2 Measure for measure
P3-4 The merchant of Venice
P5-6 The merry wives of Windsor
P7-8 A midsummer night's dream
Q1-2 Much ado about nothing
Q3-4 The taming of the shrew
Q5-6 The tempest
Q7-8 Twelfth night
R1-2 The two gentlemen of Verona
R3-4 The winter's tale
> S-V Tragedies
S1-2 Antony and Cleopatra
S3-4 Coriolanus
S5-6 Cymbeline
S7-8 Hamlet
T1-2 Julius Caesar
T3-4 King Lear
T5-6 Macbeth
T7-8 Othello
U1-2 Pericles
U3-4 Romeo and Juliet
U5-6 Timon of Athens
U7-8 Titus Andronicus
V1-2 Troilus and Cressida
> W-X Histories
W1-2 Henry IV, parts 1-2
W3-4 Henry V
W5-6 Henry VI, parts 1-3
W7-8 Henry VIII
X1-2 King John
X3-4 Richard II
X5-6 Richard III
Y Poems (optional numbers; prefer 821.3)
Y1-2 General works
Y3-4 Venus and Adonis
Y5-6 The rape of Lucrece
Y7-8 Sonnets
Z Spurious and doubtful works)

〈표 4〉 DDC 제16판~제19판에서의 Shakespeare 분류 주기

제16판	822.33 William Shakespeare A special table for arrangement of works by and about Shakespeare may be found at end of volume 2.
제17판 ~ 제19판	822.33 William Shakespeare If desired, subarrange works about and by Shakespeare according to the following table, which may be adapted for use with any specific author : ……

2. LCC

LCC의 Class P에서는 DDC와는 달리 언어와 문학을 함께 다루고 있다. LCC의 문학의 분류는 표 전체가 전개되거나 아니면 단순히 보조표에 의해서 전개되는데, 그 어느 경우에든 대체로 <표 5>과 같은 패턴을 보여준다.

문학의 세분전개는 하위류의 전개에 이어 군소국가의 문학은 하위류에서도 더 세분하고, 다음 단계에서 문학 세구분표와 개인저자별 세구분표 또는 익명 저작표에 따라 세분하고 부분적으로는 시대구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 지역구분에 의해서 세분하고 있다. 특히 개인저자별 세구분표의 경우는 21종이나 마련되어 있다. DDC의 문학류의 패킷구조가 “문학 + 언어 + 문학형식 + 시대 + 작가”순을 채택하고 있는데 비해, LCC의 경우는 “문학 + 언어 + 국가 + 시대 + 개별저자”의 순서를 채택하고 있다. 즉 문학형식은 별도의 구분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자를 주요한 구분특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개별저자에서는 다시 <표 6>과 같은 패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LCC에서 Shakespeare가 속한 시대인 르네상스기(1500-1640)는 문학형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시가, 산문, 희곡에 따라 동일저자의 작품이 분산된다. 개별저자는 고유의 분류기호를 갖게 되며, 본표에서 많은 개별저자를 알파벳순으로 열거하고 있다. 각 저자들은 저작이나 연구서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기호를 할당받게 된다.¹¹⁾ 따라서 Shakespeare와 같이 본인의 저서나 관련저술의 양이 많은 작가의 경우는 본표에서 많은 기호를 할당하게 된다. 이 때 세분배열은 보조표(table)에 의해 구성되지 않고 본표에 지시된다. 실제로 LCC 본표(1995)에서 “Middleton, Thomas”의 경우를 보면 주기사항에서 “Subarrange by Table XXXIII”라고 지시하고 있다. 이 보조표의 지시는 예에서와 같이 본표에 적용할 경우 다른 어떤 특별한 지시나 조항과 충돌되지 않을 때 적용될 수 있다.¹²⁾

11) 남태우, 전계논문, p.16.

12) Lois Mai Chan, *op. cit.*, p.85.

〈표 5〉 LCC 문학류의 일반적 전개패턴¹³⁾

History and Criticism	문학사·문학비평
General	문학총류
By Period	시대순
By Literary form	문학형식
Collections	전집·선집
General	총류
Translation	번역작품
By Period	시대순
By Literary form	문학형식
Individual Authors	개인별 저자
By Period	시대순
By date	생몰년순
By editor	판자순
Local, Colonial, Provincial	지방별

〈표 6〉 LCC 문학류의 개별저자의 일반적 전개패턴¹⁴⁾

Collected works, collected fiction, collected essays, etc	전 집
Translations(collected)	번 역
Selected works. Selections. By date	선 집
Separate works, alpabetically By title	개별저작
Biography and Criticism	전기 및 비평

LCC 본표(1995)에서 “Shakespeare”는 르네상스기의 희극(drama) 아래에 “PR 2750”부터 “PR 3112”에 이르기까지 21페이지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주요 나열순서는 <표 7>과 같다. <표 7>에 제시되지 않은 하위배열은 주로 Separate works, Poems, Doubtful, spurious works순으로 배열되어 있거나 알파벳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번역의 하위배열은 Separate works A-Z, Collected poems, Selections, Songs, Special poems or songs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이 방식은 <표 6>의 LCC 문학류 중 개별저자의 전개패턴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13) 석현증, “한국문학의 양식(장르) 및 시대 구분에 관한 기존 전개표에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8, pp.4-5.

14) Lois Mai Chan, *A Guide to the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5th ed.(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1999), pp.356.

<표 7> LCC에서의 Shakespeare 관련 주요기호의 전개¹⁵⁾

Shakespeare, William
Original quartos and facsimiles and reprints
Original editions
Facsimiles and reprints
Collected reprints
Collected works
First folio edition(1623)
:
Partial editions. Selected Works, etc.
General
By form(Comedies, Histories, Tragedies, Poems <i>see PR2892</i>)
Selections. Anthologies, etc.
Translations
Dutch, French, German, Italian, Russian, Other Slavic language,
Scandinavian, Other languages
Separate works
1차: 알파벳순 배열이고, 2차: Texts, Translations, Criticism 3차:...
Poems
Doubtful, spurious works
Imitations, paraphrases, adaptation
Translations (class here studies, etc. only)
Illustrations
Shakespeare and Music
Criticism, biography, etc
Authorship
Criticism and interpretation
Dramatic representation of Shakespeare's plays

이처럼 LCC는 DDC와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세분전개 역시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3. CC

분석합성식 분류표의 대표적인 예인 CC에서는 주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기본단위표 (standard unit schedule)의 합성에 의해 분류기호가 생성된다. CC 제7판¹⁶⁾에서 문학(O)의 패싯배열순서(facet formula)는 “문학 + 언어(language) + 문학형식(form) + 저자(author) + 개별작품(work)”(O,[1P1],[1P2],[1P3],[1P4])의 순서를 채택하고 있다. 이를 도표화하면 <표 8>과 같다.

15) *SuperLCCS: Gale's 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 Schedules, Class P, subclasses, PN, PR, PS, PZ*, (Detroit: Gale Research, 1995), pp.272-292.

16) S. R. Ranganathan, *Colon Classification*, 7th ed.(Bangalore: Sarada Ranganathan Endowment for Library Science, 1987).

〈표 8〉 CC의 문학류 패싯합성순서

[1P1]	언어구분
[1P2]	문학형식
	1 시
	2 드라마
	3 소설
	4 서간문
	5 연설문
	6 기타 산문형식
	7 Champu
[1P3]	저 자
[1P4]	작 품

1P1 언어구분은 별도의 장에 따로 마련된 국어구분기호(DG Language isolate)에 의해 구분된다. 1P2 문학형식구분은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부터 7까지의 아라비아 숫자를 부여하고 있다. 자국의 문학형식인 Champu에 별도의 기호를 배정하고 있는 것이 이채롭다. 아울러 시나 드라마, 소설 등의 형식에 대해서는 추가의 세분이 가능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정시(lyric)는 11, 민요(ballad)는 111 등과 같다.¹⁷⁾

1P3 저자구분의 기호(author isolate number)는 시대구분기호(DH Time isolate)의 연대순기호(chronological number)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연대순기호는 일반적으로 저자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최소한 3자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IP4 작품구분의 기호(work isolate number)는 특정저자의 작품에 대해 알파벳순구분기호(alphabetical device)나 열거순구분기호(enumeration device)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알파벳순구분기호는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일반적으로 각 단어의 첫 글자를 기호화하고 각각의 기호를 “+”로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면 Shakespeare의 *Merchant of Venice*의 기호는 “M+V”가 된다.¹⁸⁾ 열거순구분기호는 한 저자의 작품이 9작품 미만인 경우, 9작품 이상 65작품 미만인 경우, 65작품 이상 513작품 미만인 경우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별도의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 1) 9작품 미만: 각 작품들은 1, 2, 3, . . . 8과 같이 연대순으로 배열되고, 연대순 구별이 되지 않을 때는 임의적인 기호를 부여한다.
- 2) 9작품 이상 64작품 미만일 경우: 각 작품을 연대순(연대순구분이 불가능할 때는 임의의 순서)으로 나누어 1부터 8까지의 그룹기호(group number)를 부여하고 각 그룹에 속한 작품들에 대해 추가의 작품기호를 부여한다. 따라서 이 경우 각 작품구분기

17) 구체적인 추가세분의 예에 대해서는, CC 제7판의 E06281을 참조하라.

18) CC 제7판에서 사용되는 그 밖의 알파벳순기호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은 해당자료의 Chapter CX를 참조하라.

호는 두 자리의 기호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 자리는 그룹기호가 되며 두 번째 자리는 개개 작품의 기호가 된다.

- 3) 65작품 이상 513작품 미만: 각 작품에 대해 두 번째 방식을 확장하여, 64개 그룹기호(첫 자리), 64개 하위그룹기호(둘째 자리), 개개작품기호(셋째 자리)의 3개 기호로 구성된 작품기호를 부여한다.

한편 일반전기(a)나 전문가의 전기(w), 전집 및 선집(x) 등의 일반적인 세분과 관련해서는 선행공통구분기호(anteriorising common isolate) 등 관련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¹⁹⁾

이상에서 살펴본 규정에 따라, Shakespeare 관련자료를 실례를 들어 분류해 보면 <표 9>와 같다.

<표 9> CC 제7판에 의한 Shakespeare 관련자료의 분류에

문헌의 주제	문학	영문학	희곡	저자	작품기호		합성된 기호
					유형별	기호	
William Shakespeare: Complete Works	O	111	2	J64	연대순	없음	O,111,2,J64"x
					열거순	없음	O,111,2,J64"x
Hamlet					연대순	22	O,111,2,J64,22
					열거순	36	O,111,2,J64,36
As You Like it					연대순	12	O,111,2,J64,12
					열거순	24	O,111,2,J64,24
Venus and Adonis					연대순	34	O,111,2,J64,34
					열거순	52	O,111,2,J64,52
Biography of Shakespeare					연대순	없음	O,111,2,J64:g
					열거순	없음	O,111,2,J64:g

<표 9>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CC에서 Shakespeare의 고유기호는 "O,111,2,J64"가 된다. 각 작품을 세분하기 위해서는 표에서와 같이 여기에 작품기호를 부여하게 된다. <표 9>의 작품기호는 <표 11>의 작품순서에 따라 부여한 예이다. 다만 <표 11>의 순서가 엄격한 연대순이 아니기 때문에 <표 9>의 연대순구분은 엄밀한 의미의 연대순이 아니라 임의적 순서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CC에 따를 경우, Shakespeare의 작품들을 추가로 세분하는 데는 유용하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추가세분에 의한 그룹화에 불과할 뿐,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성격의 것들을 함께 모으는 체계적인 성격의 분류라고 보기는 어렵다. 즉 Shakespeare의 작품들이 그 성격에 따라 함께 모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연대순이나 최악의 경우에는 어

19) 선행공통구분 등을 포함한 CC의 공통구분과 특수구분 등은 이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논외로 한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CC 제7판을 참고하기 바란다.

편 임의적 순서에 의해 그룹화되게 되는 것이다.

4. Shakespeare 관련단체 및 연구자들의 분류

MIT Shakespeare Home Page²⁰⁾ 및 Shakespeare Oxford Society Home Page²¹⁾에서는 둘 모두 Shakespeare의 작품을 <표 10>과 같이 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이것은 DDC 21판에서 볼 수 있는 중앙엔트리에 의한 개별 작품(>O-Z Individual works)의 구분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10> MIT 및 Oxford Society 홈페이지의 구분

Comedy	History	Tragedy	Poetry
All's Well That Ends Well	Henry IV, part 1	Anthony and Cleopatra	The Sonnets
As You Like It	Henry IV, part 2	Coriolanus	A Lover's Complaint
The Comedy of Errors	Henry V	Hamlet	The Rape of Lucrece
Cymbeline	Henry VI, part 1	Julius Caesar	Venus and Adonis
Love's Labours Lost	Henry VI, part 2	King Lear	Funeral Elegy by W.S.
Measure for Measure	Henry VI, part 3	Macbeth	
The Merry Wives of Windsor	Henry VIII	Othello	
The Merchant of Venice	King John	Romeo and Juliet	
A Midsummer Night's Dream	Richard II	Timon of Athens	
Much Ado About Nothing	Richard III	Titus Andronicus	
Pericles, Prince of Tyre			
Taming of the Shrew			
The Tempest			
Troilus and Cressida			
Twelfth Night			
Two Gentlemen of Verona			
Winter's Tale			

한편 국내 순천향대학교 영어영문학과 Shakespeare 홈페이지²²⁾에서는 장르구분 외에 연대구분을 추가하여, <표 11>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20) <http://the-tech.mit.edu/Shakespeare>, 인용 2002년 7월 15일: 1993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Shakespeare 전집을 제공하는 첫 번째 웹사이트.

21) <http://www.shakespeare-oxford.com>, 인용 2002년 7월 15일: The Shakespeare Oxford Society는 1957년 뉴욕에서 비영리 및 교육적인 성격의 조직으로 설립되었으며, 2002년 현재 회원수는 약 600명 정도 된다. 또한 많은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조직이다.

22) <http://asan3.sch.ac.kr/~mrshax/html/list2.htm>, 인용 2002년 7월 15일: Shakespeare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되는 링크 역시 권위를 지닐만한 사이트이며, 작품구분을 장르, 시대,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고 있다.

〈표 11〉 순천향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홈페이지의 구분

1. 초기극 : 1590-1595년의 습작극				
• 역사극 : [헨리 6세], [리처드 3세]				
• 희극 : [실수연발], [말괄량이 길들이기], [베로나의 두 신사], [사랑의 헛 수고]				
• 비극 : [티투스 안드로니쿠스], [로미오와 줄리엣]				
2. 중기 희극 : 1596-1602년 사이에 창작된 가상의 나라를 무대로 한 낭만희극				
• [한여름밤의 꿈] : 아테네를 무대로	• [베니스의 상인] : 벨몬트를 무대로			
• [헛소동] : 메시나를 무대로	• [뜻대로 하세요] : 아든 숲을 무대로			
• [십이야] : 일리리아를 무대로				
3. 영국 사극 : 영국역사에서 소재를 딴 사극				
• [리처드 2세]	• [헨리 4세]	• [헨리 5세]	• [존 왕]	• [헨리 8세]
4. 로마 사극 : 로마사를 소재로 하여 4대 비극기와 겹쳐 창작된 사극				
• [줄리어스 시저]	•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	• [코리올라누스]		
5. 4대 비극 : 1600-1606년에 창작된 최고절작 비극				
• [햄릿]	• [오셀로]	• [리어 왕]	• [맥베스]	
6. 어두운 희극 : 4대 비극기에 쓰여진 희극으로 끝이 깨운하지 않은 극				
• [트로일루스와 크레스이다]	• [끝이 좋으면 다 좋아]	• [법에는 법으로]		
7. 후기 극 : 1608-1612년간 작가의 만년에 쓴 로맨스 풍의 극				
• [페리클레스]	• [심벨린]	• [겨울 이야기]	• [템페스트]	
8. 시집과 소네트				
• [루크리스의 겁탈] : 초기에 쓰인 시집으로 시인으로서의 명성을 얻어준 계기				
• [비너스와 아도니스] : 젊음의 관능적 사랑을 주제로				
• [소네트 집] : 창작연대가 불분명한 소네트의 모음				

또한 윤정은 등²³⁾은 해방이후 1989년까지 한국에서 발표된 단행본을 포함하여 학술 연구 논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연구 논문 및 저서를 <표 12>와 같이 연구 주제별로 세분하여 구분하였다.

〈표 12〉 Shakespeare 연구물의 구분 및 건수

1. 극장	6건	8. 비극론	28건
2. 수용, 번역의 문제	10건	9. 희극론	12건
3. 셰익스피어 교육	1건	10. 사극론	5건
4. 서지학	19건	11. 로맨스론	2건
5. 일반론	44건	12. 비교연구	32건
6. 비평이론	14건	13. 개별 작품론	332건
7. 언어	14건	14. 시	26건

이중에서 개별 작품론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많은 대중에게 잘 알려졌다고 생각되는 4대비극이 차지하는 비율은 햄릿이 53건, 리어왕이 41건, 맥베스가 41건, 오셀로가 27건으로 총 162건으로 연구물 전체 545건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장서의 양뿐만 아니라 이용빈도 역시 그러함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는 장서량 및 이용자의 편의를 근거로 한 분류전개를 위해 충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3) 윤정은 등, “한국에서의 셰익스피어 연구조사(Ⅰ),” *Shakespeare Review*, 20(1992), pp.75-115.

Ⅲ. Shakespeare 관련항목의 재전개를 위한 제안

이상에서 살펴본 각 시스템들은 Shakespeare라는 동일저자에 대해 각 시스템마다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같은 특징들을 지니고 있는 분류 시스템을 실제 적용함에 있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몇몇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사용하고 있는 분류시스템을 분석하고 새로운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현재 Shakespeare에 관련된 많은 장서를 소장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시스템이 DDC와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에 한정되어 있어, 앞서 살펴본 분류체제를 모두 분석할 수 없었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DDC에서는 Shakespeare를 위한 분류기호 및 세분전개를 위한 임의규정(options)을 제공하고 있지만, KDC에는 세분전개를 위한 임의규정은 물론이고 별도 분류기호 자체가 없는 실정으로 DDC기호를 응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DDC를 위주로 한 논의가 되었다. 그리고 분류시스템을 알아보기 위한 검색과정에서 검색시스템이 제공하는 한계로 인한 제약도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1. Shakespeare 관련항목의 분류실태와 문제점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원하는 특정 단행본에 접근하는 경로를 보면 대부분이 키워드, 서명, 저자명 검색을 통하여 원하는 자료의 존재유무와 대출가능여부 그리고 도서관에서의 소장위치를 확인하고 청구기호를 통해 서가상의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와 자료를 연결시켜주는 매개물이 바로 청구기호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청구기호는 크게 분류기호와 도서기호로 구성된다. 분류기호는 동일한 주제의 자료를 함께 모이게 할뿐 아니라 유사한 주제의 자료를 서로 인접하게 하기 위한 문자 또는 숫자로 표시된 체계화된 기호이고, 자료의 서가상 위치를 표시해 주는 기호이다.²⁴⁾ 따라서 분류기호는 이용자가 서가상의 자료에 접근하기 위한 즉 서가검색을 위한 1차 기준이 된다. 또한 도서기호는 분류기호에 이은 2차적 배열기준으로써 동일한 분류항목 내에서 각 문헌에 대한 배열위치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주는 기호법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일한 분류항목 내에 두 개 이상의 문헌이 모일 때 또는 이를 예상하여 이들을 각각 개별화하는 데 쓰이는 기호법으로써 서가배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²⁵⁾

24) 김남석, 도서기호(대구 :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9), p.19.

25) 상계서, p.23.

어떤 기호법이라도 어느 도서관에서나 망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유용성을 지니지는 않는다. 즉 도서기호를 예를 들면, 장서량이 많은지 적은지, 그것이 상세하게 분류되었는지 아닌지, 서고가 이용자에게 개방되어 있는지, 대출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청구기호뿐인지 서명이나 저자를 필요로 하는지, 이용자들이 동일 저자의 도서를 원하는지 다른 저자의 동일 주제의 도서를 원하는지, 최신자료를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²⁶⁾ 따라서 특정 주제하에서 장서가 차지하는 장서량은 도서기호 뿐만 아니라 분류기호에서도 해당 분류기호의 세분전개 수준을 결정한다. DDC에서는 이를 위해 상세 분류 대 간략분류에 대한 기본적인 임의규정을 제공하고 있다.²⁷⁾ 또한 CIP(Cataloging in Publication) 데이터에도 구분장치(segmentation device)가 마련되어 있어 DDC 기호를 간략화 하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몇몇 대학도서관에서 Shakespeare라는 한 저자가 영미희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표 13> 국내 5개 대학도서관의 Shakespeare 관련저작의 장서비율(Shakespeare/영미희곡)

H 대학교	K1 대학교	K2 대학교	S 대학교	Y 대학교
745/1,569건 약 47%	1075/1,831건 약 59%	857/1,887건 약 45%	1,162/1,817건 약 64%	938/1,732건 약 54%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영미희곡에서 Shakespeare가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50%를 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연구자들이 조사한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검색을 위해 Shakespeare의 경우는 분류기호를 전방일치검색방식에 따라 822.33*으로 제한하였으며, 영미희곡의 경우는 822*로 제한하였다.²⁸⁾ 따라서 Shakespeare의 저작 중 전집에 속해 있는 것은 808에 분류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대학의 경우 단행본뿐만 아니라 다른 형식의 자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며, 시스템에 따라 절단기법에서 오는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각 도서관에서의 분류상의 오류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Shakespeare의 DDC 분류기호 822.33은 장서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자체만으로는 분류기호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추가의 세분이 불가피해 보인다. DDC에서 제공하고 있는 임의규정(options)은 이를 위한 보완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는 이 임

26) 이양숙, “우리나라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서기호법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28권(1995), p.29.

27)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1th ed., Vol. 1, *op. cit.*, 1.

28) 분석대상 대학도서관들은 모두 영미희곡을 822에 분류하고 있고, Shakespeare는 822.33에 분류하고 있었다.

의규정을 활용하지 않고 있다. 즉 임의규정을 포함한 분류기호를 세분하여 전개하기보다는 도서기호를 부여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각 도서관에서 Shakespeare 관련저작에 사용하는 도서기호의 대표적인 유형을 보면, “저자기호 + 저작기호,” “저자기호 + 특별구분을 위한 별도기호,”²⁹⁾ “저자기호 + 저작기호 + 특별구분을 위한 별도기호” 등의 유형이 있다.

한편 KDC의 경우는 Shakespeare 관련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기호로 영미문학에 대한 분류기호 842에 DDC의 822.33에서 빌려온 .33을 추가하여 842.33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본표에는 임의규정에 관련된 어떠한 지시사항도 없다. 따라서 KDC를 사용하게 될 경우는 도서기호를 추가하여 각 문헌들을 개별화해야 한다.

그런데 DDC를 사용하는 경우든 KDC를 사용하는 경우든, 도서기호로 저자기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Shakespeare 자신의 저작을 분류할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즉 “822.33”이나 “842.33”이 이미 Shakespeare를 의미하는 분류기호로서 이미 이 분류기호가 저자기호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기에 Shakespeare에 대한 저자기호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한국역사에 관한 문헌을 분류할 때 역사를 의미하는 표준세구분표의 -09를 추가로 붙이는 결과와 동일한 효과를 지닌다. 즉 이것은 사족이 되는 것이다. DDC 본표에서 Shakespeare의 저작에 대해 형식에 따라 다른 기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표 3>에서와 같이 임의규정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일반적인 십진분류법의 경우, Shakespeare를 포함한 세계적인 작가들의 경우 관련저작들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DDC의 예를 들면 Shakespeare의 경우 해당작품이 세계문학전집의 일부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는 808에 분류되며, 시의 경우는 821.3, 서지의 경우는 016.82233에 분류될 수 있다. 어느 도서관의 경우에는 심지어 총류 080에 분류된 작품들도 볼 수 있다. 물론 목록을 통해 검색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이와 같은 동일저자의 분산은 이용자 측면에서는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된다. 이런 문제는 비단 Shakespeare의 분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문학류 전체의 분류와 관련하여 개선의 소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윤희윤은 문학형식의 조합방식의 문제를 포함한 DDC 문학류 분류상의 문제점들을 적절히 지적한 바 있다.³⁰⁾ 또한 Comarommi는 DDC 문학류의 분류와 관련하여 이용자들은 첫째, 단일 저작에 관한 그리고 단일 저작에 의해 쓰여진 저작들이 분리와 분산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있고, 둘째, 이용자에게는 자의적인 결정처럼 보이는 특정문학작품의 형식에 관한 목록작성자의 결정으로 인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전자의 경우는 DDC가 Shakespeare에 대한 개인 분류기호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문제점임을 적시

29) 특별구분을 위한 기호: 소재기호, 비평표시, 개인작품사전표시, 전기서, 번역표시, 임의부호 등.

30) 특히 DDC 문학류분류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윤희윤, “DDC 문학류의 조합식 분류시스템 분석: 20판을 중심으로,” 도서관학논집, 제20집(1993), pp.374-375. 참조

하고 있다.³¹⁾

자주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문학저자에 표현된 형식을 정확하게 해석하여 적용하기 힘든 것은 문학텍스트가 어떤 특수한 장르의 카테고리에 딱 들어맞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심지어 장르적 규정을 파열시키기도 하고 있어서, 문학텍스트의 장르는 이제 고정된 불변태가 아니라 늘 새로운 장르와 의미가 창출될 수 있는 마당으로서 우리에게 전래적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보다는 훨씬 다양한 종류의 장르가 있을 수 있다.³²⁾ 따라서 분류담당자가 문학형식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분류기호를 조합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이용자에게도 개인저자의 저작이나 개인저자에 관한 저작이 형식에 따라 분산배치됨으로써 검색시 초래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용성과 실용성이라는 관점에서 형식분류의 기본원칙을 재평가하여 개인저자의 모든 저작을 균집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합순서와 방식을 개선하고, 본표의 항목들도 재조정하여 분류기호의 조합패턴을 단순화시켜야 할 것이다.³³⁾

우수한 분류시스템은 이용자들에게 편리한 순서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하며,³⁴⁾ 개가식(open-shelf) 분류시스템의 주요 요인인 장서조직과 브라우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데,³⁵⁾ Shakespeare 관련문헌들은 이상에서 지적한 문제들로 인해 여전히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 새로운 분석합성식 전개방식의 제안

현재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Shakespeare 관련항목의 전개는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특히 장서량에 근거했을 때, 청구기호의 중복이 많이 발생하여 체계적인 접근, 개별화 및 브라우징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기호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이유로 청구기호의 중복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³⁶⁾ 청구기호의 중복은 실제문헌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hakespeare 관련자료의 분류와 관련하여 앞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 및 기준으로 개선책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Shakespeare 분류기호 적용시 대학도서관에서는 청구기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임의규정(options)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이는 이미 <표 13>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서량

31) John Phillip Comaromi,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0th edition: a Study Manual*, op. cit., p.259.

32) Kwang Sok Han, "Deconstructing Critical Classification of Genres in English Drama," *여주대논문집*, 7(1) (1999), p.1.

33) 윤희운, 전계논문, p.376.

34) Mary Mortimer, op. cit., p.9.

35) Richard J. Hyman, *Shelf Access in Libraries*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2), p.115.

36) 이양숙, 전계논문, pp.51-52.

에 근거했을 때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hakespeare의 저작에는 일차적으로 Shakespeare 자신의 분류기호(DDC의 경우 822.33)를 부여해야 한다. 즉 시나 그 밖의 형식의 경우도 저자의 기호에 우선 분류한 후 추가의 세분을 실시해야 한다. 이는 이용자들의 서가검색과 자료브라우징시 초래되는 혼란 및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Shakespeare 자신의 저작의 경우는 청구기호에 저자기호(Cutter-Sanborn의 경우 S527 등)의 사용은 불필요하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의미의 중복으로 레이블의 공간낭비와 이용자의 접근상의 불편만을 초래할 뿐이다.

넷째, Shakespeare 관련저작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을 위해 추가의 세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현재 DDC 임의규정에서 제공하고 있는 A-Z의 배열순서는 몇 개의 단위로 군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가의 세분에 있어서는 패시화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서량에 입각한 구분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섯째, 상세한 분류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장서량에 따른 각 대학도서관의 선택의 폭을 넓혀 분류표의 유연성을 주어야 한다.

여섯째, 사용되는 분류기호는 일반적인 요건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순서를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동시에 간략하고 단순해야 하며, 새로운 주제나 토픽들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한 기호는 주제 토픽들의 계층적 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조기성과 함께 패시의 변화와 상관관계의 성격을 나타내 줄 수 있어야 한다.³⁷⁾

일곱째, Shakespeare 관련자료에 대한 배열상의 열거순서 및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모든 이용자에 유용한 순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³⁸⁾ Shakespeare 관련자료가 갖는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자에게 유용성을 갖는 순서를 부여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Shakespeare 관련자료를 분류하기 위한 새로운 패시의 전개단계를 제시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Shakespeare 관련자료의 세분전개를 위한 패시의 배열순서는 <표 14>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반적 특성(generalities) + 문학형식(form) + 개별작품(works) + 언어(language)”로 한다.

37) 오동근, “분석적 합성식 문헌분류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2호(1998), pp.70-71.

38) 상계논문, p.67.

〈표 14〉 새로운 전개방식

제1패킷(Generalities)		제2패킷(Form)		제3패킷(Works)		제4패킷(Language)	
기호	내용	기호	내용	기호	내용	기호	내용
B	전기, 비평(종합)	A	해당없음	0	개별작품별 로 고유기호 부여(단 "0" 은 해당없음)	1	언어구분기호 에 따라 별도 기호 부여
C	전집	C	Comedy(희극)	1			
S	선집	H	History(사극)	2			
T	4대비극(2종이상)	T	Tragedy(비극)	3			
W	개별저작	P	Poetry(시)	4			
Z	기타	Z	기타	.			

둘째, 제1패킷인 일반적 특성에서는 Shakespeare 관련 모든 문헌을 전기 및 비평(B: biography), 전집(C: collection), 선집(S: selection), 4대비극(T: tragedy), 개별저작(W: works), 기타(Z) 순서로 된 6개 포커스로 이루어진 배열구조(array)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LCC의 문학류에서 제시한 개별저작의 일반적인 전개패턴 및 LCC 본표에 나타나 있는 Shakespeare 주요 분류기호의 패턴, 그리고 DDC 21판에서 제공하는 임의규정(options)에서 나열하고 있는 A-Z의 패턴 등을 참고로 한 것이다. 다만 이 패킷에서 4대비극(T)에는 4대비극(Hamlet, King Lear, Macbeth, Othello) 가운데 둘 이상의 작품을 다룬 저작만이 배정되고 이 가운데 하나의 개별작품만을 다룬 저작은 개별저작에 분류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기타(Z) 항목에서는 Shakespeare의 저작에 관련된 기타문제(예를 들면 저자성(authorship)의 문제, 번안서 및 개작서, 용어집, 극화문제(dramatic representation) 등등)를 추가세분하여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분류기호는 각각의 일반적 특성을 설명하는 영문자의 머리글자의 대문자를 선정하여 조기성을 갖도록 하였다.

셋째, 제2패킷인 문학형식에서는 Shakespeare의 작품들을 희극(C: comedy), 사극(H: history), 비극(T: tragedy), 시(P: poetry), 기타(Z)의 순서로 된 5개포커스로 이루어진 배열구조를 형성하도록 하였다. 이는 DDC 임의규정의 중앙엔트리(centered entry)와 <표 10> 및 <표 11>에서 분석한 작품구분을 참고로 한 것이다. 분류기호는 각 형식의 영문자 머리글자의 대문자를 선정하여 조기성을 갖도록 하였다. 다만 해당저작이 문학형식을 갖지 않을 경우에는 알파벳대문자의 첫 자인 "A"를 부여하여 이것이 패킷지시기호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³⁹⁾

넷째, 제3패킷인 개별저작패킷에서는 각 저작을 개별적으로 기호화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는 각 형식내에서 작품별 순서를 부여한 아라비아 숫자로 된 고유기호를 설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도 해당저작이 개별작품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는 아라비아숫자의 첫 번째 기호인 "0"을 부여하여 이것이 패킷지시기호의 역할을 하도록 하

39) 분석합성식 문헌분류에서 기호법의 사용에 대해서는, 오동근, 전개논문 참조.

였다.

다섯째, 제4패킷인 언어패킷에서는 저작의 언어를 기호화하도록 하였다. 언어의 기호는 KDC나 DDC의 국어구분의 기호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도서관의 경우라면 KDC 4판의 제5조기표인 국어구분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Shakespeare의 원작들이 영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어작품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서관에 따라, 영어에 대한 기호를 “4” 대신 “0”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을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새로운 전개방식에 따라 DDC의 경우를 예로 들어 Shakespeare 관련 문헌을 분류해 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새로운 전개방식에 따른 DDC의 적용 예

문헌의 주제	제1패킷	제2패킷	제3패킷	제4패킷	합성된 기호
Shakespeare 전기(한국어)	B	A	0	1	822.33BA01
Shakespeare 작품론(한국어)	B	A	0	1	822.33BA01
4 Tragedies of Shakespeare	T	T	0	4	822.33TT04
William Shakespeare: Complete Works	C	A	0	4	822.33CA04
Hamlet	W	T	3	4	822.33WT34
As You Like it	W	C	2	4	822.33WC24
헨리 5세(한국어)	W	H	3	1	822.33WH31
Venus and Adonis	W	P	4	4	822.33WH31
Shakespeare Concordance	Z	A	0	4	822.33WP44

<표 15>의 예들은 연구자들이 편의상의 기호법을 부여하여 제시한 것들이다. 따라서 각 도서관들은 도서관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기호법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새로운 전개방식은 CC나 LCC, KDC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상에서 제시한 4개 패킷에 추가하여 연도구분 등의 추가패킷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IV. 요약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Shakespeare와 관련된 문헌의 분류 및 확장 전개에 대해 DDC, LCC, CC 등의 주요분류표 및 기타 영문학분야의 전개상황에 대해 살펴보고, 현재 우리 나라의 몇몇 대학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hakespeare 관련자료의 분류실태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분석합성식 분류를 활용한 새로운 전개방식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전개방식은 기본적으로 Shakespeare라는 주제(DDC의 경우 822.33) 아래에서 4개의

패킷으로 구성되며, “일반적 특성(generalities) + 문학형식(form) + 개별작품(works) + 언어(language)” 순으로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제1패킷인 “일반적 특성”은 전기 및 비평(B: biography), 전집(C: collection), 선집(S: selection), 4대비극(T: tragedy), 개별저작(W: works), 기타(Z) 순서로 된 6개 포커스로 이루어진 배열구조(array)를 갖는다. 제2패킷인 “문학형식”은 희극(C: comedy), 사극(H: history), 비극(T: tragedy), 시(P: poetry), 기타(Z)의 순서로 된 5개 포커스로 이루어진 배열구조를 갖는다. 제3패킷인 개별저작패킷은 각 저작을 개별적으로 기호화하도록 하였다. 제4패킷인 언어패킷에서는 저작의 언어를 기호화하도록 하고, 국내도서관을 위해서는 KDC 4판의 제5보조표인 국어구분의 사용을 권고하였다.

Shakespeare에 관련된 문헌에 대한 이 새로운 전개 방식은 현재 우리 나라 대부분의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인 DDC나 CC, LCC, KDC에 공히 적용할 수 있다. 현재 DDC의 경우 확장전개를 위한 임의규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그것은 문자에 의한 조기성을 갖지 않는 A-Z까지의 단순한 열거식에 불과하다. KDC의 경우는 Shakespeare에 관련된 문헌의 확장전개방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별도의 분류기호조차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상에서 제시한 새로운 전개방식은 두 분류표에 모두 도움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 전개방식은 Shakespeare와 같이 한 저자에 의한 저작이 많을 경우 약간의 수정을 통해 다른 저자에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끝으로 Shakespeare 관련 문헌에 대한 이용자의 혼란 및 불편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논의된 것과 같은 세분전개도 필요하겠지만 이를 실제 적용하는 분류담당자의 관심 역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다. DDC에서 이미 임의규정(options)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도서관의 경우 이를 적용하는 도서관은 거의 없는 것은 분류담당자들의 이와 같은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